



HOME > 문화|사회|종교 >

정치경제
문화|사회|종교
도시관광
수출|투자
국제|외교
IT|과학
여성|환경
연예|스포츠
전시행사
기업|상품
유학|이민
중국뉴스

로그인 | 회원가입 | © 편집 2011.11.11 [04:02]

문화|사회|종교

- 문화교육
- 사회복지
- 종교철학
- 건강의료
- 송의용 칼럼
- 송박사 서효석칼럼
- 뉴욕일보특집
- 이계자 교육칼럼
- 성모병원 의학칼럼

“여기 일자리 있습니다”

11월4일 뉴저지서 ‘세스나 잡월드 엑스포’

뉴욕일보 김소영 ☎

RecClick

▶ **보험료 1원도 안오르는 암보험?**

▶ 의료실비보험 실속가입안내

▶ **확실하게 보장하는 치아보험**

▶ 병원비 돌려주는 의료실비보험인기!

2011년 대부분의 대기업 공채가 막을 내리고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의 바늘구멍을 찾기 위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채용 공고를 찾고 있다. 힘 없이 취업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재들이 2011년 대기업 공채가 끝나고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다. 이러한 글로벌 인재들이 한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11월4일 한국 대기업들과 한인 기업, 미국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스나(CESNA) 잡월드 엑스포’가 뉴저지 티브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다.

올해 9회째 열리는 잡월드 엑스포에는 매년 삼성, LG, KT(한국통신), 스타벅스, 체이스뱅크 등 한국 및 국제기업들이 채용 업체로 참가하고 있다. 참가 기업에 대한 정보는 공식웹사이트(www.JobWorldUSA.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용 분야로는 비즈니스 관련 전공, IT, 엔지니어링, 그래픽·인테리어 디자인, 파인 아트, 공학 계열 등이다.

구직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인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박람회 입장료 10달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세스나의 방시현 매니저는 “박람회장에 올 때는 이력서를 여러 장 준비해 오는 게 좋고 온라인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 사전 지원할 경우, 여행 장학금과 같은 현장에서 여행 경비를 충당해 갈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 가능하다”고 말하고 “구직자라면 기업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태도는 필수”라고 조언한다.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들 역시 잡월드 참가 접수처(사무국 전화 201-567-8886)로 연락하면 된다.